

<교과서 43쪽> 詩中有畫, 畫中有詩.

위 문구는 蘇軾(소식)의 <書摩詰藍田煙雨圖: 마힐(왕유)의 「남전연우도」에 적다>에서 유래하였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원전 및 해석]

味摩詰之詩, 詩中有畫, 觀摩詰之畫, 畫中有詩. 詩曰: 마힐의 시를 음미하면 시 속에 그림이 있고, 마힐의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. 시에서 이르기

藍谿白石出 남계(藍谿)에 하얀 돌이 드러나고
玉川紅葉稀 옥천(玉川)에는 붉은 잎 드무네.
山路元無雨 산길에는 비 내린 적도 없는데
空翠濕人衣 푸른 빛의 하늘이 옷을 적시네.

[해설]

摩詰(마힐)은 王維(왕유)의 자(字)이다. 중국 송(宋)나라 때의 문인 소식(蘇軾)이 ‘畫中有詩’라고 평가했던 왕유(王維)의 그림 <남전연우도(藍田煙雨圖)>는 남아 있지 않다. <서마힐남전연우도(書摩詰藍田煙雨圖)>에 실린 시는 아마도 왕유의 산수시인 산중(山中)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荊溪白石出 형계(荊溪)에 하얀 돌이 드러나고
天寒紅葉稀 날이 추우니 붉은 잎도 드무네.
山路元無雨 산길에는 비 내린 적도 없는데
空翠濕人衣 푸른 빛의 하늘이 옷을 적시네.

▶ 산수화 <남전연우도>를 畫中有詩, 산수시 <산중>을 詩中有畫로 평가한 것이다. 그렇다면 시에 그림이 있고, 그림에 시가 있다는 본의는 무엇일까?

詩中有畫는 시가 그림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 그림의 요소가 있어 그림을 보는 것 같다는 뜻이고, 畫中有詩는 그림이 시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시의 요소가 있어서 시를 보는 것 같다는 뜻이다. 따라서 詩中有畫는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고, 畫中有詩는 그림 속에 뜻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.

이러한 연유로 味摩詰之詩, 詩中有畫, 觀摩詰之畫, 畫中有詩.에서 詩中有畫, 畫中有詩 8글자가 널리 회자되었다.